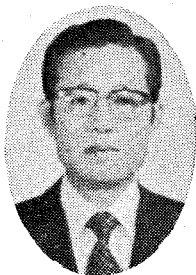


품종 이렇게 선택하면 다수확 한다

출수기 다른 품종재배로 위험분산



농촌진흥청

미산지도과장

이 효 근

쌀을 다수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으나 가장 근본적이며 선행해야 할 일은 알맞는 품종을 선택 재배하는 일이다.

'83년에 권장되고 있는 벼의 장려품종은 33품종이고 준장려품종이 11품종 도합 44품종이 재배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의 42품종 보다 2품종이 많아졌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 보급되는 품종이 10품종이고 폐기된 품종이 8품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품종들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모든 점에서 다 좋은 품종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품종의 단점을 가꾸기에서 보완하고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을 때 재배

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각품종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재배적지와 재배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1. 품종 고를 때 지켜야 할 일

가. 자기고장의 장려품종 중에서 고른다.

장려품종은 도별로 정해져 있으며 다시 도내의 지대별로 권장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고장에서 권장되는 품종 중에서 고르도록 해야 한다.

나. 자기는 성질에 맞는 품종을 고른다.

◇ 벼 품종 이렇게 선택하면 다수확 한다 ◇

같은 지대내에서도 보통논, 미숙논, 모래논, 고논, 간척논 그리고 1모작논, 2모작논, 특히 물사정이 나쁜 논, 그늘진 논, 찬물이 들어오는 논 등 가지각색의 논이 있으며 이러한 논 사정에 따라 알맞는 품종이 다르므로 자기의 논 성질에 맞는 품종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다. 이삭떨때가 다른 2~3개 품종을
고루 심도록 한다.

우리는 그동안 가뭄, 냉해, 풍해, 수해, 우박피해 등 여러가지 기상재해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천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재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벼의 생육단계가 약간씩 다르도록 벼를 가꾸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이삭떨 때의 기상재해는 사실상 방제대책이 없으므로 그 피해를 분산, 회피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몇일 간격으로 이삭째는 때가 다르도록 가꾸는 일이 현명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농작업의 노동력안배도 되고 특히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만생종을 먼저 심고 조생종을 나중에 심으며 콤바인이나 바인더로 수확할 때는 조생종을 먼저하고 만생종을 뒤에 하면 농기계의 이용율

을 높이면서 모두 적기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라. 다수성품종을 많이 심도록 한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부터 심어오던 일반계품종과 1971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다수계(통일계) 품종의 2가지형이 있다. 이 두가지 형의 품종간에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품종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모든 지역에서 안전한 다수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계품종은 대체적으로 잎의 넓이가 좁고 길게 처지며 대가 가늘고 한 이삭에 달리는 벼알수가 적다. 쌀은 둥근편이며 찬기에 견디는 힘은 강하다. 그러나 도열병이나 흰빛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에는 약한 품종이 많다. 다수계품종은 잎이 넓고 항상 곳곳이 서 있으며 이삭위로 잎이 떨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한 이삭에 달리는 벼알수가 많아 다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배기간 동안 일반계품종보다 2~3°C 높은 온도가 요구되며 찬기견딜성이 약하다.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에는 강한 품종이 많고 흰빛잎마름병, 벼멸구에도 강한 품종이 있다. 일반계품종에 비하여 늦심기에는 약하고 물스밀성이 나쁜 곳

◇ 벼 품종 이렇게 선택하면 다수확 한다 ◇

에서는 뿌리의 활력이 더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다수계품종은 비교적 벼가꾸기에 좋은 논에서 재배되어야 하고 이러한 곳에서는 크게 다수확할 수 있다.

표고 250m 이하엔 다수성 품종

결국 다수계품종을 심는 것이 유리한 논은 표고 250m 이하의 지대, 물사정이 좋고 찬물이 들어오지 않은 논, 너무 늦게 심지 않은 논에서는 일반계품종 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표고 250m 이상되는 논, 찬물이 들어가는 논, 그늘진 논, 늦게 심는 논에는 일반계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밥맛·영양가도 많이 개선 돼

일부에서 밥맛을 따지는 사람도 있으나 요즘 나온 다수계품종은 과거의 통일이나 유선에 비하여 훨씬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자가소비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영양가, 특히 흰자질함량에 있어서는 일반계품종 보다 월등히 많아 영양가가 높은 쌀이라 할 수 있고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10~20%의 찹쌀을 섞어먹으면 건강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쌀값을 따지는 농가도 있으나 다수

계품종이 다소 값이 낮더라도 10a당 쌀 1가마니는 더 생산되므로 총수익은 그래도 많은 것이다.

◇ 품종별 흰자질함량 비교

다수계품종	흰자질함량	일반계품종	흰자질함량
서광벼	8.15%	추청벼	5.35%
밀양30호	8.03	진주벼	6.06
청청벼	7.02	능백	5.71

거름값 더 드나 방제비는 낮아

또한 다수계품종은 경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계품종은 거름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거름값이 20~30% 더 드는 것은 사실이다(다수확하기 위해서는 거름을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열병을 막기 위한 농약은 일반계품종 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줄무늬잎마름병은 전연 걸리지 않으므로 애멸구(애멸구가 줄무늬잎마름병을 옮김) 방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벼멸구에도 극히 강하며 오히려 병충해방제비용은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밖의 농작업은 다수계품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드는 일은 없으므로 결국 영농비는 일반계품종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확되기 때문에 탈곡과 조제 그리고 벼를 포장하기 위한 포대값 등은 약간 더 들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된다)

2. 지대별 유형별 알맞은 품종

가. 산간고냉지(표고 400m 이상되는 지대)

○찬기전딜성이 매우 강한 극조생 중품종을 택한다.

○보통논, 미숙논에는 송진벼, 여명벼, 소백벼, 치악벼, 설악벼, 추광벼 중에서 택하되 송진벼는 표고 500m 이상되는 높은 지대에 알맞다.

○수리불안전논에는 늦심기에 비교적 강한 여명벼가 좋다.

나. 중산간지(표고 250~400m)

○찬기전딜성이 강한 조생종을 심어야 하고 다수제 품종은 알맞지 못하다.

○보통논, 미숙논에는 산간고냉지대 품종과 농백, 도봉벼, 북광벼, 관악벼, 대창벼 중에서 택한다.

○시루논, 찬물논에는 산간고냉지대에 알맞은 품종을 심는다.

○수리불안전논에는 여명벼, 농백추광벼, 대창벼 중에서 택한다.

다. 중간지(표고 100~250m)

○찬기전딜성이 약간 있고 생육기간이 짧은 다수제 품종은 심을 수 있다.

○보통논, 미숙논에는 1모작에 태백벼, 백운찰벼, 백양벼, 추풍벼, 가야벼, 농백, 관악벼, 도봉벼, 추광벼, 북광벼, 설악벼, 여명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상풍벼, 봉광벼, 대창벼를 추가하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낙동벼, 진주벼, 추청벼, 신선찰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2모작논에는 농백, 관악벼, 대창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삼남벼, 대전이남지방에는 태백벼, 백운찰벼, 추풍벼, 백양벼, 가야벼, 추광벼, 북광벼, 낙동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시루논, 찬물논에는 1모작에 치악벼, 도봉벼, 농백, 여명벼, 관악벼, 추광벼, 북광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상풍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2모작에는 농백, 관악벼, 여명벼 중에서 택한다.

○고논, 오수가 들어오는 논에는 태백벼, 추풍벼, 관악벼, 도봉벼, 북광벼, 추광벼, 추청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백양벼, 상풍벼, 봉광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침수상습지에는 백양벼, 태백벼, 백운찰벼, 북광벼, 농백 그리고 대전이남지방에는 삼강벼, 낙동벼, 추청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수리불안전논은 즉 제때 씨뿌림을 하고 물이 없어 모내기가 늦어지는

◇ 벼 품종 이렇게 선택하면 다수확 한다 ◇

곳(못자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태백벼, 추풍벼, 백운찰벼, 농백, 복광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삼남벼, 상풍벼, 대창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특용작물, 채소 등의 뒷그루도 아주 늦게 심는 논(7월중)에는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을 택해야 하며 농백, 추광벼, 복광벼, 관악벼, 여명벼, 도봉벼 그리고 대전이남지방에는 태백벼, 추풍벼, 백운찰벼, 상남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재배한다.

라. 평야지(표고 100m 이하 지대)

○보통논, 미숙논의 1모작논에는 대전이북지방에서 태백벼, 백운찰벼, 백양벼, 삼강벼, 가야벼, 풍산벼, 서광벼, 청청벼, 밀양 30호, 남풍벼, 한강찰벼, 관악벼, 상풍벼, 봉광벼, 낙동벼, 진주벼, 추청벼, 대창벼, 동진벼, 추풍벼, 영풍벼, 신선찰벼가 알맞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밀양 42호, 수정벼, 섬진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 너무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종을 심으면 소출이 떨어지니 아주 일찍 햅쌀을 출하하기 위한 조기재배할 때를 제외하고는 중만생종을 심는 것이 다수확 할 수 있다.

○보통논, 미숙논의 22모작논에는 태백벼, 백운찰벼, 관악벼, 상남벼, 대창벼, 낙동벼 추풍벼 그리고 대전이남 지방에는 백양벼, 가야벼, 상

강벼, 밀양 30호, 상풍벼, 진주벼, 추청벼 봉광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시루는, 찬물논에는 관악벼, 상풍벼, 그리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낙동벼, 섬진벼, 봉광벼, 추청벼, 신선찰벼를 추가하고 2모작논에는 상남벼, 상풍벼, 농백, 추광벼, 여명벼 그리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봉광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고논, 오수가 들어오는 논에는 태백벼, 추풍벼, 백운찰벼, 관악벼, 상풍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백양벼, 청청벼, 남풍벼, 봉광벼, 추청벼, 낙동벼를 추가하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동진벼, 섬진벼, 신선찰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침수상습지에는 백양벼, 태백벼, 백운찰벼, 삼강벼, 한강찰벼, 상풍벼, 낙동벼, 추청벼, 신선찰벼, 그리고 대전이남지방에는 밀양 42호 서광벼, 섬진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수리불안전논 즉 모내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논에는 태백벼, 백양벼, 추풍벼, 상남벼, 상풍벼, 봉광벼, 낙동벼, 삼강벼, 가야벼, 신선찰벼, 그리고 대전이북지방에 농백을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7월중에 늦게 심는 논에는 농백 추광벼, 복광벼, 여명벼, 대창벼, 그리고 한강이남지방에는 상남벼,

◇ 벼 품종 이렇게 선택하면 다수확 한다 ◇

도봉벼, 대전이남지방에는 태백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간척논에는 관악벼, 상풍벼, 상남벼, 백양벼, 태백벼, 가야벼, 진주벼, 봉광벼, 낙동벼, 추청벼, 대전이남지방에는 섬진벼, 신선찰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마. 극남부지역(전남·경남의 남해안 연안지역)

○백양벼, 태백벼, 삼강벼, 밀양 42호, 서광벼, 한강찰벼, 낙동벼, 섬진벼, 추청벼, 풍산벼, 신선찰벼 중에서 택한다.

바. 냉조종지대(동해안 연안지대)

○농백, 관악벼, 여명벼, 추광벼, 도봉벼, 치악벼, 소백벼, 복광벼, 그리고 영덕이남지방에는 상남벼, 상풍벼를 추가한 품종 중에서 택한다.

3. 어떤 품종이 병해충에 강한가

가. 도열병

추풍벼, 백운찰벼, 태백벼, 백양벼, 가야벼, 삼강벼, 청청벼, 풍산벼, 서광벼, 수정벼, 영풍벼, 한강찰벼, 신광벼.

나. 흰빛잎마름병

백운찰벼, 태백벼, 백양벼, 삼강

벼, 풍산벼, 밀양 42호, 한강찰벼, 신광벼

다. 오갈병

가야벼, 삼강벼, 영풍벼, 신광벼, 밀양 23호, 풍산벼(남풍벼, 백운찰벼는 비교적 강한 편임)

라. 검은줄무늬오갈병

신광벼, 풍산벼, 남풍벼(영풍벼, 밀양 23호, 백운찰벼, 가야벼, 백양벼, 삼강벼는 비교적 강한 편임)

마. 벼멸구

백운찰벼, 가야벼, 삼강벼, 청창벼, 밀양 30호, 영풍벼, 남풍벼, 한강찰벼

4. 알맞은 벼알떨림성을 갖는 품종

다수제품종으로서 벼알떨림이 알맞는 품종(잘 떨어지지 않은 품종)은 다음과 같다.

백운찰벼, 백양벼, 가야벼, 밀양 30호 밀양 42호